

2월의 기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1. DCEM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2014년 한해도 말씀을 전하실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2.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 2014년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의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초청기관, 단체, 교회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5.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고 이 땅의 빛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DCEM 성회안내

2월 19, 20일 인도네시아 발리과판에서 'Healing Crusade (치유집회)'가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오사카순복음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장로님께서 후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양호, 김정환, 나인규, 안희순, 오주봉, 이형춘, 정경자, 정낙숙, 한태성, 함석숙, Esther Han, Hetherington, *** **** 1875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외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의 특별 메시지

하나님의 생각

핀란드 헬싱키에는 락 처치(Rock church)라고 하는 바위로 만든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은 들리는 유명장소가 됐지만 처음엔 건축하려고 했을 때는 시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많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를 냈습니다. 헬싱키 시내에 교회를 짓는 아이디어 모집광고였습니다.

그런데 한 공대생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내용이 헬싱키 가운데 있는 바위산을 파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활 속에 큰 기적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를 수 없는 방법이지만 이와 같이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전혀 다른 곳에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제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각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성경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면 희한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경험을 따라 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감각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뛰어넘어 믿음의 깊은 세계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의지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제8회 GVP 윈터캠프, 조용기 목사 강사로 초청

“주 안에 소망을 갖고 거룩한 꿈을 꾸라”



청소년 선교사역단체인 GVP(God Vision People)가 1월 6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에서 '제8회 GVP 윈터캠프'를 개최했다.

윈터캠프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인생에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세우야 하는지 알게 해 청년, 청소년들을 이 세대의 리더로 세우기 위한 행사다. 교파를 초월해 열린 이번 행사에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강사로 초청되어 메시지를 전했다.

성회 셋째날 오전예배에서 조용기 목사는 히브리서 13장 5-6절 말씀을 통해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심어줬다. 조용기 목사는 어릴 적 폐병을 앓았을 때 성경을 읽으며 소망이 생겼고 예수님을 통해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간증하며 “한국 최대교회를 세우겠다는 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소망을 갖고 이뤄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운 역사를 창조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성회에는 개인 참가자들 뿐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12개 교회가 연합해 중고등부와 청년부 학생들 900명과 학부모 300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학생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고 각자가 속한 지역으로 돌아가 학교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사역할 것을 다짐했다. 청소년을 위한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부모들의 중보기도 캠프도 동시에 진행돼 자녀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성회에 참석한 남소현 학생은 “지난해에도 참석했는데 예배와 기도시간이 많아서 은혜롭고 좋았다.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감을 갖게 됐다. 늘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신년 특집 대담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지난 해 12월 18일 국민일보와 기독교 IPTV C 채널이 공동으로 주최한 신년특별대담 한국선교 130주년 '한국교회 희망을 말하다'에 출연했다.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진행을 맡은 이 프로그램은 조용기 목사의 반세기 목회와 사역을 집중 조명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꿈을

희망차게 가슴에 품고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새해인사로 시작한 조용기 목사는 한국교회 발전을 위한 교계지도자로서의 의견을 진솔하게 전했다. 특히 한국교회는 후퇴가 아닌 조정기로서 사랑을 베풀면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조용기 목사는 시청자들을 위해 “예수님을 의지해 마음에 강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굳센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 새해 여러분을 위한 예비된 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리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울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 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 1장 11절)

다. 그러면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21일이 되든 한 달이든 그 꿈은 병아리가 돼 깨어나옵니다. 우리가 꿈이 없이 살면 유정란이 아닌 무정란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무정란은 백날을 안고 있어도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마음에 품으면 꿈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그것을 잘 키우고 못 키우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어쨌든 꿈꾸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꿈이 부화되면 인생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2.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까다롭고 대하긴 힘든 분이이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끼어들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우리는 ‘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힘이 되는 성경구절들을 늘 마음으로 암송하고 입술로 고백하며 그것을 상상하고 감사하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3. 우리의 태도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됩니다.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말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두려워하는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형통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이 같이 계신 사람은 형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잘 섬기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과 자기의 생각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주일까지 아무리 애를 쓰고 일해 봐도 별로 형통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기록하였으며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바라보고 믿은 것을 입술과 혀로 시인하므로 우리는 더 큰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살려면 제일 먼저 마음속에 목표 있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바라보고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기적을 행합니다. 이제는 그 꿈과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바라보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바라보고 믿고 고백한대로 이뤄집니다. 희망찬 새해를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면 이 한 해를 굉장히 성공적인 해로 보내게 될 것이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신년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복스러운 해가 될지, 고통과 슬픔의 새해가 될지, 꿈과 희망이 이뤄지는 행복한 해가 될지 알 수 없는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물을 지날 때 함께 하시며 강을 건널 때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며, 불을 지날 때 타지도 않게 하시며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희망찬 꿈을 안고 새해를 맞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새해를 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나 홍해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건너갈 다리도 없고 배도 없습니다. 바로 왕의 대군대가 그들을 다시 포로로 잡기 위해서 쫓아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바로의 군대와 홍해 사이에서 그 어디로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에 길을 만드는 전대미문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뤄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새해

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될 것입니다.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길이 열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2014년 한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장로 신년사



오 헨리의 단편소설인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면 가난한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서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고심하는데, 부부가 가진 것이라곤 고작 1달러 87센트.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존재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잘라 그것을 내다 팔아 남편의 금시계 줄을 마련합니다. 남편 역시

아내의 선물을 사기 위해 가보로 물려받은 금시계를 팔아 아내의 머리카락을 빗겨줄 값진 빚을 준비합니다.

이렇듯 최고의 선물은 선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진심이 담긴 선물,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최고의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그리스도

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선 순위는 죄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징표입니다. 가장 무가치한 존재를 위해 가장 고귀한 희생을 치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슨 선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선물,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선물로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2014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중한 값진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와 성령 충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